Eugene's FICC Update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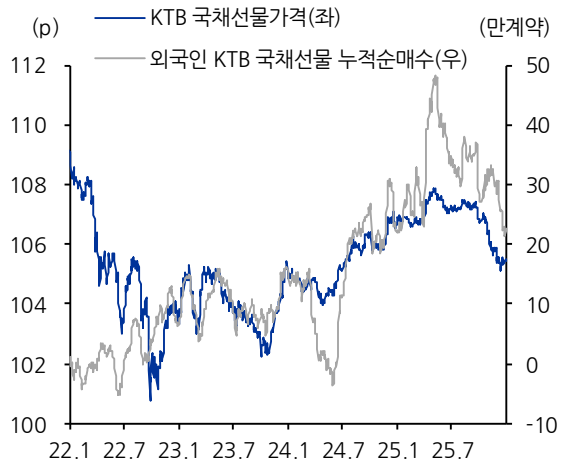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 02)368-6149_ 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 02)368-6138_ jhoonlee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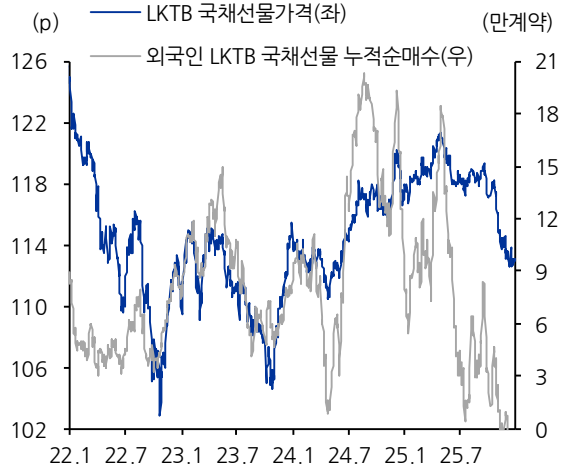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틱)

		1/1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953%	0.1	-1.0	0.0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385%	0.0	0.6	0.0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43.2	43.3	41.6	43.2
	3년 국채 선물(KTB)	105.44	-6.0	4.0	0.0
	10년 국채선물(LKTB)	112.92	-16.0	24.0	0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472%	2.3	-6.1	0.0
	미국채 10년물	4.160%	3.6	-0.5	0.0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68.8	67.5	63.2	68.8
	독일국채 10년물	2.855%	0.0	-4.1	0.0
	호주국채 10년물	4.754%	0.0	-0.1	0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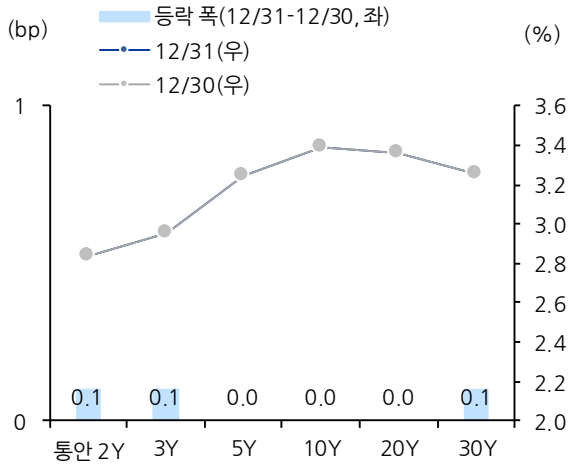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보합권 마감. 마지막 날 거래량 급감하며 한산한 모습.
- 장내채권 국채선물 등 주요 금융시장 휴장한 가운데, 채권거래 급격히 줄어들며 금리 보합권 마감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. 실업수당 청구건수의 예상치 하회 영향.
- 마지막 날 거래는 한산. 오전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 이후 금리 상승하기 시작. 본 지표가 전주대비 1.6만건 감소되면서 시장 예상치인 22만건을 대폭 하회했기 때문.
- 이후 금리는 연말을 맞아 거래량 한산한 가운데 횡보하며 마감.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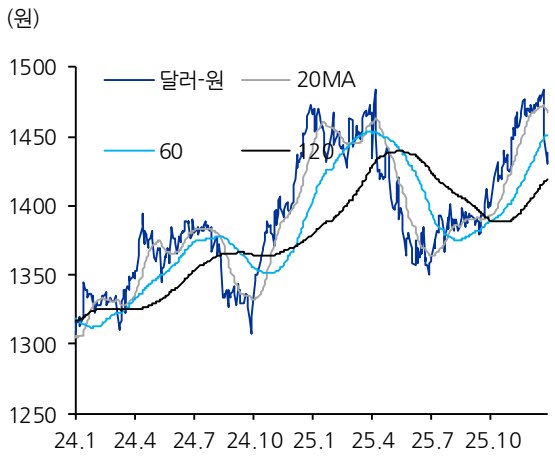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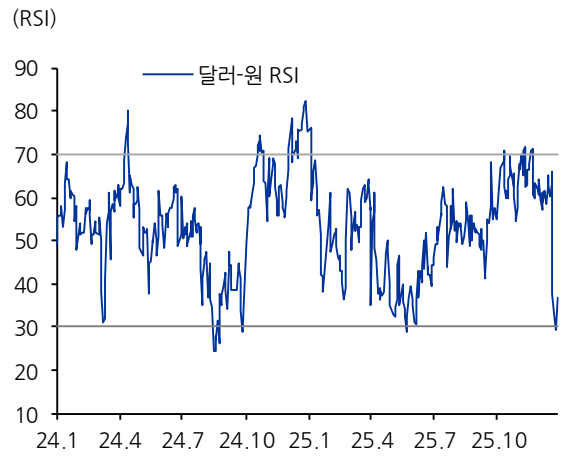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$)

		1/1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439.00	0.6%	-2.8%	0.0%
	달러지수	98.29	0.1%	0.4%	0.0%
	달러/유로	1.175	-0.1%	-0.3%	0.0%
	위안/달러(역외)	6.98	0.1%	-0.2%	0.0%
	엔/달러	156.65	0.0%	0.6%	0.0%
	달러/파운드	1.346	-0.1%	-0.4%	0.0%
	헤알/달러	5.52	0.0%	-0.1%	0.0%
상품	WTI 근월물($)	57.42	-0.9%	-1.6%	0.0%
	금 현물($)	4,318.60	0.1%	-3.6%	0.0%
	비트코인($)	87,885.00	-0.4%	0.2%	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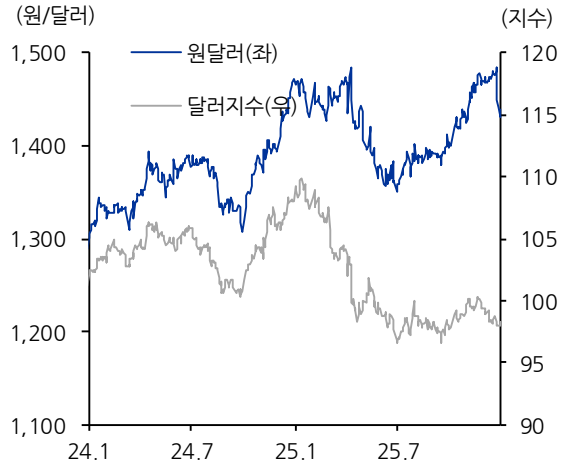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12/30일 달러-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9.20원 상승한 1,439.0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439.50원 마감.
- 당국의 연말 환율 종가 관리를 경계하는 가운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. 지난 며칠 흐름과 정반대로 장 초반 1,427원선에서 저점 형성 후 꾸준히 상승폭 확대.
- 달러-원은 정규장 직후 연말 종가가 확정되자 1,440원대 중반으로 빠르게 올랐으나 이후 재차 반락. 이날 외국인들은 국내주식을 7,800억원 가량 순매도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연말 한산한 장세 속 약보합.
- 전일 FOMC 의사록 여파로 상승했던 달러는 이날 연말 장세 속 변동성 제한.
- 지난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19.9만 건으로 예상치를 밑돌자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이후 별다른 방향성 없었음. 달러인덱스는 연간 기준 -9.4% 하락.